

약치홀트 Jan Tschichold

디자인의 혁명, 뉴 타이포그래피

20세기 타이포그래피의 대가라고 불리는 얀 치홀트(Jan Tschichold). '신타이포그래피'라는 용어는, 얀 치홀트 이전까지 당대 혁신적인 여러 디자인들 사이에 공유된 새로운 예술의 비전을 담은 일반적인 서술어에 불과했다. 이 말을 심화시켜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, 실천적으로 전개해 특별한 용어로 만든 인물이 바로 선구적 디자이너 얀 치홀트이다.

타고난 타이포그래퍼 '얀 치홀트'

독일의 한 레터링 아티스트의 아들로 태어난 얀 치홀트는 어렸을 때부터 글자에 관심이 많았다.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 하고 타이포그래퍼의 길로 들어섰다. 1923년, 바 이마르에서 열린 바우하우스 전시회 관람 후 뉴 타이포그래피에 매료되어 1928년 새로운 사상을 인쇄업계에 설명하는 실용적인 책, '뉴 타이포그 래피'를 저술하기도 하였다. 또한 그는 1925년에 잡지 '타이포그래픽 뉴스'에 '타이포그래피 원리' 를 발표, 체계적 이론정립에도 앞장섰다. 그 이론 은 현재까지 전 세계 디자인 학교에서 타이포그래 피 이론의 기본으로 설명되고 있다.

얀치홀트는 뉴 타이포그래피를 기본적으로 전통 적인 중축적 장식에서 탈피한 기능적인 비대칭 타 이포그래피의 대표라고 정의했다. 텍스트를 합리 적으로 디자인하려 노력하며, 전달의 목적, 언어 가치의 강조, 내용의 논리적 유용성, 그리고 가독 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 비대칭의 리듬과 현대적 활자인 산 세리프를 사용해 독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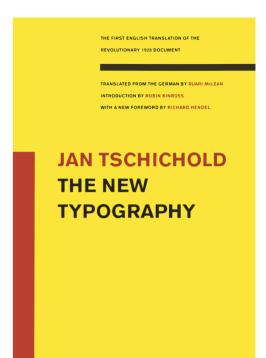
Die Frau Ohne NaMen (1927)

약치홀트가 포이부스-팔라스트 영화관을 위해 디자인한 영화 '이름없는 여인'의 포스터에는 1920년대 뉴 타이포그래피의 기 하학적 특징 일체가 구성되어있다.



Plakate der Avantgarde (1930)





The New Typography (1928)

얀치홀트는 타이포그래피 이론을 정리한 '신 타이포그래피'를 출간했다. '타이포그래피 원리'가 인쇄를 위한 타이포그래피 매뉴얼이라면, 신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이너를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타이포그래피 기술 교본이었다.



비대칭 레이아웃은 뉴 타이포그래피의 핵심이다. 비대칭 레이아웃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은 단조로 운 기능적 디자인을 보완하는 율동적 표현이다. 비대칭을 통한 동적 균형은, 디자인 중심에서 나 누어진 두 면이 서로 겹쳐지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형태상으로는 불균형 해도 레이아웃을 통해 균형을 이루며 개성과 역동 성을 느끼게 한다. 균형을 통해 안정된 레이아웃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나, 구성 요소 사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정감도 깨진다.

Willi Kunz,
Columbia University
Introduction to
Architecture Poster